安東權氏 耆老會 복달임

기로회를 창시한 정간공(靖簡公) 희(僖)는 고려 충숙왕 6년 1319년 기미에 출생하여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검교의정부좌정승(檢校議政府左政丞)겸 수문전태학사(修文殿太學士)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봉군됐다. 태조 4년 1395년에 77세였던 공은 학식과 덕망으로 작을 받고 태종4년1404년 갑신 봄에는 나라의 원로급 인사 10명과 함께 기영회(耆英會)를 조직하였다. 쌍명재(雙明齋) 최당(崔讜)의 고사에 의하여 일찍이 정승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사람이면 연령의 구애됨이 없이 기영회의 입회시키고 공이 그 수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로회의 창시이다.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사무실을 둔 안동권씨기로회가 한여름 초복놀이 겸하여 기로회원 일동은 서울 당고개역에서 11시에 모여 오동나무식당에서 보내준 차량편승 식당에서 복달임을 하였다.

참석인원은 모두가 마주하여 정다운 인사를 나누며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앞산의 요산요수을 즐기기 앞서 권문은 모이면 예를 가추는 것이라 시조 태사공님에게 망배를 올리고 서로의 상견례를 마치고 기로회장은 인사말로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말보다 회원 여러분들의 말을 중히 여기는 이런 습관을 생활화 하자고 부탁하였다.

이어서 권영익명예회장은 영원한 기로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정택회장을 도와서 열심히 출석하여 좋은 의견 교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행사를 위하여 회장과 사무국장이 수고하였으며 700년 우리 안동권씨 기로회가 영원히 존속되어 안동권문의 사시 중 으뜸인 기로사시를 지킬 것을 서로 약속하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복달임을 마쳤다. 모든 행사비용은 권정택 회장이 부담하고 권영익 고문이 20만원을 찬조하였다. 〈기로회〉

僕射公派宗會 會長團會議

복야공파종회 회장단회의

△ 복야공파종회 회장단회의(원내는 신임 권기덕 회장)

복야공파종회(회장 권기덕)는 7월 24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복야공파종회관에서<2015년도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권두갑, 권오수 고문을 비롯하여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종준 대종원 감사, 운영위원, 대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오익 총무부장의 사회로 시조묘소 및 파조단소 망배, 상읍례, 안건심의,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기덕 파종회장은 권계동 권종준 등 2명에게 복야공파종회 고문 추대장을, 권영달 등 4명에는 자문위원 선임장을, 권대경 등 14명에게는 신임 부회장 선임장을, 권석호, 권영하 2명에게는 감사 선임장을 각각 전달했다.

권기덕 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개최하려던 회장단 회의를 <메르스> 때문에 연기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난 총회 때 회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맡은 바 중책을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테니 회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는 이번 임원은 각 문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했기 때문에 그 문중을 이끄는 유능한 사람들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권오익 총무부장의 경과보고를 마치고 심의안건인 운영위원과 대의원 선임안 2건을 의결했다. 제1안은 임기 만료된 현 운영위원 136명 중 유고자 44명을 제외하고 신규 57명을 포함한 149명을 신임 운영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제2안은 임기 만료된 현 대의원 189명 중 유고가 있는 52명을 제외하고 신규 62명을 포함한 199명을 대의원으로 추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기타토의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무부회장의 명칭을 상임부회장으로, 총무부장의 직제를 국장으로 높이는 등 두 안건을 총회 때 상정할 것을 회장단에 건의하였다.

이 외에도 회비만 내고 있는 부회장들을 최대한 활동을 잘 하게 하고 임원단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회장단 수첩을 만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회의를 모두 마친 참석자 전원은 안동시 평화동 <청운식당>에서 중식을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壬辰倭亂과 幸州大捷

安東權氏 耆老會長 權 貞 澤 忠莊祠 祭奠委員

(지난호에 이어서)

이 적색 점토층이 복토 층에서도 판축성벽과 같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언제 덮힌 것인지는 확실치 않치만 幸州山城이 壬辰倭亂時 보수 되었다는 약 8m가량 되고 높이는 3m 가량 되어 자연적으로 흘러내린 토사의 양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0.5-1m 가량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이 토성 벽의 서북단의 門址로 추정되는 곳까지 160m구간인데 土碧으로된 성벽을 쌓지 않고 자연 경사 많을 ㄴ자 모양으로 깍아내어 경사를 급하게 유지하고 깍아낸 면을 성벽의 정상부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이구간은 자연경사가 급하여 성벽을 쌓을 수가 없으므로 능선을 깍아 내어 이곳을 교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교통로로 사용된 이곳의 폭이 약 3-4m 가량 되므로 이곳에 목책 등의 보강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하였으나 목책을 세웠던 구덩이는 확인할 수 없었고 나중에 세워진 건물의 적심시설 일부만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성벽이 끝나는 자리가 충장사 사이는 계곡을 이루고 있었서 당시의 문지로 사용 되었던 곳으로 추정 되는데 이곳에서는 생로암반을 파고들어간 배수구가 확인되었으며 문지 서벽 기저부에서만 두께50cm 가량의 통일신라시대성토층이 확인되었을 뿐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정문지의 현재 폭은 약7m가량 되는데 콘크리트로 배수구와 수도관이 설치되어있는 등 조사상의 제약으로 성벽 기저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당초 문지의 폭은 6m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 出土遺物

(1)土器類

이상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출토된 토기는 모두 원래위치에서 이동된 것으로 성벽축조시 성 내외부에서 채취된 흙속에 섞여 들어온 것이며 따라서 층위에 따른 시간적인 선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토기 편들이 성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성벽을 쌓은 시기는 이들 토기의 년대보다는 늦거나 같음을 알 수 있다. 토기들은 대부분 城壁版築土 내에서 출토되었는데, 모두 11개의 기종 186개채에 달하며 이들이 각 기종별구성은 출토된 토기들은 모두 파편상태로 원형은 1점도 없으나 口緣部나 挹手低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원래의 모습을 추정 복원할 수 있었다. 복원된 토기의 기종은 고배류 완류 반류 대부완류 뚜껑류 읍수부등 시루류 대 배 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호, 옥류와 파수부동이류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토기류 중에서 특히 고배 류는 시기적인 변화가 잘 관찰 되는 유물로서 행주산성에서 출토된 고배류는 구연부가 낮고 구연받이 턱이 u형을 이루고 있으며 굽다리도 낮아서 한단의 뚜공이 뚤리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형태의 고배류는 통일신라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것으로 시흥 관악산의 호암산성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배류가 출토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안동권씨대종원 사무총장 모집

안동권씨대종원은 사무총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희망자는 연락바랍니다.

- 조건 및 제출서류 -

·년 령 : 60세~75세
·거주지 : 서울시 및 인천, 경기
·연락처 : 대종원 서울사무소 전화 02-2695-2483/4
·팩 스 : 02-2695-2485
·컴퓨터, 한문 및 기사집필 :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사진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우 : 130-820)

안동권씨대종원 총재

KBS 역사스페셜의 解說全文

〈2009.9.5 KBS에서 방영된 역사 스페셜은 중앙일보에도 게재된바 있고 고증은 되지 않았어도 우리 권문과 관련있는 내용들로써 학자들이 연구 검토할 사항이어서 종보에 게재한다.〉

중원에서 최초로 한족을 밀어낸 금태조 아골타, 그의 시조는 놀랍게도 신라인 함보였다. 이것은 전설이나 야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나라의 정사인 <금사>와 금 건국 시 송나라에서 씌어진 <송막기문>에 명확히 나오고 있다.

"금시조의 이름은 함보인데 처음에 고려에서 온 신분이다" (금사본기 제 1권, 세기)

"여진의 추장은 신라인이고 완안씨는 중국말 왕과 같다" (송막기문)

1. 금사와 송막기문

고려에서 온 신분이며 신라인인 금시조. 아골타의 출생년도를 고려해 계산해보면 금 시조 함보가 여진에 들어온 시기는 신라 말, 고려 초다. 당시 신라와 고려의 왕조교체기였던 한반도의 사정을 생각하면 두 사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아골타의 조상 함보, 그는 과연 누구일까?

금황실 계보도

廟號	諡號	이름(諱)	君臨期間	系譜
始祖	懿憲景元皇帝	完顔函普	941~ 960	從高麗來
	淵穆玄德皇帝	完顔烏魯	960~ 962	函普의 子
	和靖慶安皇帝	完顔跋海	962~ 983	烏魯의 子
獻祖	純烈定昭皇帝	完顔綏可	983~1005	跋海의 子
昭祖	武惠成襄皇帝	完顔石魯	1005~1021	綏可의 子
景祖	英烈惠桓皇帝	完顔烏古乃	1021~1074	石魯의 子
世祖	神武聖肅皇帝	完顔劾里鉢	1074~1092	烏古乃의 子
肅宗	明睿穆獻皇帝	完顔頗剌淑	1092~1094	劾里鉢의 弟
穆宗	章順孝平皇帝	完顔盈歌	1094~1103	頗剌淑의 弟
康宗	獻敏恭簡皇帝	完顔烏雅束	1103~1113	劾里鉢의 長子
太祖	章孝大聖武元皇帝	完顔阿骨打	1113~1123	劾里鉢의 二子

<동명해사록>에 함보의 9대손(실은 7代孫) 아골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한다.

김부(경순왕敬順王)가 비록 항복하여 고려왕이 합병하였으나 **김부의 외손 완안아골타는 곧 권행의 후예로서 능히 중국을 갈라 다스려 백년동안 대를 이었으니…** (동명해사록 1636년)

조선의 유학자 김세렴은 여진족의 아골타를 경순왕의 외손이며 조선 최고가문 권행의 후예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권행의 본래 성은 金(김)씨였다. 김행의 아들이며 경순왕의 외손인 금의 시조. 당시 족내혼을 했던 신라 왕실의 관습을 고려하면 그의 성이 金(덧말:김)이며 신라의 후예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동명해사록>의 금 시조와 <금사>의 함보는 과연 동일인인가?

신라 후예인 왕족과 발해 후손의 왕비족이 세운 나라, 금 함보를 시조로 둔 금 황실은 발해인을 왕비로 맞는다. 금나라의 성군 세종의 어머니, 4대 황제 해릉왕의 어머니는 모두 발해 여인이었다. 또한 아골타는 발해인을 신뢰하여 발해유민 장호를 새로운 수도 북경 건설 책임자로 등용한다. 발해는 대제국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었다. 금나라는 이런 발해의 경험을 이용하여 국가체제를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청 황실의 성씨도 김씨였다.

청태조 누루하치

금 멸망 후 (372년후인) 1616년, 여진은 다시 후금을 세웠다. 바로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이다. 그런데 청나라 황제 성은 아이신 줘러 였다. 아이신(愛新) 이란 금(金), 줘러(覺羅) 란 겨레(族)부족 씨 등을 뜻한다. 결국 금 부족, 김씨들이라는 뜻이다.

신라 왕족인 김씨, 그의 후예인 금 황실, 청 황실까지 그들은 모두 금을 뜻하는 김(金)씨들이었던 것이다.

만주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금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만주의 역사는 우리 민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족의 영토,중원을 만주대륙에 합병하여 오늘의 중국을 완성한 여진족, 그들 선조가 신라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국수주의적 우월감을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반역사적인 동북공정 논리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우리 역사를 지켜내어 향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역에 평화의 논리적 근거를 재확인하자는 것이다.

小考

본 작품은 중국 동북공정을 의식한 자료로 만들어졌다.

금사(金史), 송막기문(松漠記聞),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 동명해사록(東溟海槎錄) 등을 출전으로 요지(要旨)는 중국의 북부를 제패(制覇)한 金나라의 황실 선조가 고려(신라) 사람이고 국호 금은 신라종성 金氏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태사공후예설은 동명해사록(김세겸 기행문)을 인용 금 태조 아골타가 우리 시조의 9대손이라 언급하였다.

출전의 사료적 비중과 인용 원문과 역문을 실어 금시조의 태사공 후예설을 밝혀 본다.

2. 金史 卷一 世紀

金之始祖諱函普 初從高麗來 年已六十餘矣 兄阿古廼好佛 留高麗不肯從曰 後世子孫必有能相聚者 吾不能去也 獨與弟保活里俱. 始祖居完顏部僕幹水之涯 保活里居耶懶 其後胡十門以扈蘇館歸 太祖自言 其祖兄弟三人相別而去 蓋自謂阿古廼之後 石土門迪古乃保活里之裔也 及太祖敗遼兵于境上獲耶律謝十乃使梁福幹答剌招諭渤海人曰 女直渤海本同一家 蓋其初皆勿吉之七部也 始祖至完顏部居久之 其部人嘗殺它族之人 由是兩族交惡鬪鬪不能解 完顏部人謂始祖曰 若能為部人解此怨 使兩族不相殺部 有賢女年六十而未嫁 當以相配仍為同部

중요부분 해석 : 금의 시조는 이름이 함보(函普)이고 고려(高麗)에서 왔는데 나이가 60이 넘었다……동생인 보활리(保活里)만 함께 와서, 시조는 僕幹水연안의 완안부(完顏部)에 살았고, 그 동생은 耶懶에 살았다.....발해인을 달래기를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가족이다. 처음 물길(勿吉)의 7부족중에 하나였다." 시조가 완연부로 와서 오래 살았는데....현숙한 여자가 있어 나이 60인데 시집가지 않았으니 당연히 서로 배필이 되어서 이내 같은 부족이 되었다.

<金史 : 元나라 脫脫撰 등이 편찬한 중국의 正史로 태조의 7대조까지 계보와 군림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서(史書)이다.>

스페샬에는 인용하지 않았으나 금사 성씨고에도 관련기록이 있으니

(7卷) 姓氏考 "完顏 金始祖自新羅來居完顏部因以爲氏..

<완안은 금나라 시조가 신라로부터 완안부에 와 살았는데 그래서 성이 되었다.>

3. 松漠記聞

女真酋長 乃新羅人號完顏氏 完顏猶漢言王也 女真以其練事後隨以首領讓之兄弟三人一爲熟女真酋長號萬戶其一適他國 完顏年六十餘 女真妻之以女亦六十餘 生二子 其長即胡來也 自此傳三人 至楊哥太師無子 以其姪阿骨打之弟 謚曰文烈者 爲子其後楊哥生子鬣辣(달랄)乃令文烈歸宗

중요부분 해석 : 여진의 추장은 신라인으로 완안씨라고 불렸다. 완안은 한나라 말로 왕과 같은 것이다.

<松漠記聞 : 宋 洪皓가 억류중인 휘종(徽宗) 흠종(欽宗)부자(父子)의 구출 교섭차 金에 갔다가 그역시 북만주(北滿洲)에 근 10년 억류되면서 견문을 기록한 책으로 여진-거란-발해 관련 연구에서는 제법 신뢰성이 높고 비중있게 취급되는 자료이다.

4.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

新羅王金姓相傳數十世則金之自新羅來無疑建國之名亦應取此

역 : 신라 임금은 김씨가 수십세를 전하였으니 곧 금나라의 신라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것이 없고 나라를 세운 이름도 응당 여기서 딴 것이다.

건륭제(乾隆帝)는 금사의 금시조의 이름 함보를 합부로 정정하였고 금, 청왕조가 신라에서 왔음을 단정(斷定)하였다.

<滿洲源流考 : 중국 청나라 때의 만주 풍속 지리지이다. 아계(阿桂) 등이 황제<高宗 乾隆帝>의 명에 따라 부족, 강역(疆域), 산천, 나라의 풍속 따위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록하였다. 1739년에 간행되었으며, 총 20권으로 되어있다.

5. 동명해사록(東溟海槎錄)

"…金傳雖降而麗王竝 °其外孫完顏阿骨打 °卽權幸之後 °乃能幸割中國 °傳世百年 °豈非所謂神明之後者耶 °<역 : ...김부는 비록 항복하여 고려에 합병되었으나 그 외손 아골타는 바로 권행의 후손으로 나중에 중국을 갈라 다스려 백년을 代이었으니 이른바 신명의 후손된 자라 않을 수 있으리오?…>

<동명해사록 : 조선 인조 때 문신 김세렴(金世濂:1593~1646)이 일본에 사행(使行)한 견문기로 논제 부분은 경주를 지나면서 천년고도에 대한 감상문(感想文)이다> 스페샬에는 금 태조 아골타가 함보의 9대손이라 하나 7대손이다.

함보→오로→발해→수가→석로→오고내→핵리발→烏雅束/阿骨打

系譜比較

金 史					高麗史(或者)	松漠記聞
廟號	諡號	이름(諱)	君臨期間	系譜		
						(外祖)金傅
					金幸	權幸
始祖	懿憲景元皇帝	完顏函普	941~ 960	從高麗來	克守(遁女眞)	函普
	淵穆玄德皇帝	完顏烏魯	960~ 962	函普의 子		胡來
	和靖慶安皇帝	完顏跋海	962~ 983	烏魯의 子		
獻祖	純烈定昭皇帝	完顏綏可	983~1005	跋海의 子		
昭祖	武惠成襄皇帝	完顏石魯	1005~1021	綏可의 子	古乙太師	
景祖	英烈惠桓皇帝	完顏烏古乃	1021~1074	石魯의 子	活羅太師	楊哥太師
世祖	神武聖肅皇帝	完顏劾里鉢	1074~1092	烏古乃의 子	劾里鉢	闥辣(달랄)
肅宗	明睿穆獻皇帝	完顏頗剌淑	1092~1094	劾里鉢의 弟	.....	
穆宗	章順孝平皇帝	完顏盈歌	1094~1103	頗剌淑의 弟	盈歌	
康宗	獻敏恭簡皇帝	完顏烏雅束	1103~1113	劾里鉢의長子	烏雅束	
太祖	章孝大聖武元皇帝	完顏阿骨打	1113~1123	劾里鉢의 二子	阿骨打	阿骨打

스페샬에는 없으나 고려사의 관련기록을 적어본다.

6. 高麗史14卷-世家 睿宗3년(서기1115)

是月(正月)生女眞完顏阿骨打稱皇帝更名旻國號金. 其俗如匈奴諸部落無城郭分居山野無文字以言語結繩爲約束. 土饒猪羊牛馬馬多駿或有一日千里者. 其人鷙勇. 爲兒能引弓射鳥鼠及壯無不控弦走馬習戰爲勁兵諸部各相雄長莫能統一. 其地西直契丹南直我境故嘗事契丹及我朝. 每來朝以麩金貂皮良馬爲贄我朝亦厚遺銀幣歲常如此. 或曰: "昔我平州僧今俊遁入女眞居阿之古村是謂金之先." 或曰: "平州僧金幸之子克守初入女眞阿之古村娶女眞女生子曰古乙太師古乙生活羅太師, 活羅多子, 長曰劾里鉢季曰盈歌盈歌最雄傑得衆心, 盈歌死劾里鉢長子*烏雅束嗣位*烏雅束卒弟阿骨打立<金太祖>."

중요부분 해역 : 어떤이가 말하기를 "옛날 우리 평주(平州=황해도 평산))의 승려 금준(今俊)이 <고려를> 도망쳐서 여진의 아지고촌(阿之古村)에 머물렀던 것이 바로 금의 시조라고 이른다" 어떤이는 "평주의 승려 김행(金幸)의 아들 극수(克守)가 여진의 아지고촌에 처음 들어가서 여진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고을태사(古乙太師)라고 불렸다. 고을이 활로태사(活羅太師)를 낳았다. 활라가 아들이 많으니 맏이는 핵리발이고 막내가 영가인데 영가가 가장 웅걸하여 문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영가가 죽고 핵리발의 맏아들 오아속이 자리를 잇고 오아속이 죽으매 돌생 아골타(金 太祖)가 섰다."

금의 건국사실을 기록하면서 전문(傳聞) 2가지를 실었는데 전자는 평주승 금준이 여진으로 넘어갔다 하고 후자는 평주승 김행의 아들 극수(克守)이 여진으로 넘어가 금태조 아골타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바 우리 시조와 성명은 일치하나 핵리발 선대의 이름이 다른데 同人異名으로 연관지을 단서가 없고 代數 또한 3대나 차이(고려사 : 극수→고을→활라→핵리발. 금사 : 함보→오로→발해→수가→석로→오고내→핵리발)가 날뿐 아니라 발언자나 출전이 없으니 신뢰하기 어렵다.

7. 스페샬 작자의 함보의 경순왕 외손설

경순왕 : ~978(927~935) 왕건 : 877~943(918~943)

함보 : (941~960)

권행 : 우리 태사공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태조가 아부(亞父)라 한 것을 보아 태조보다 10年長은 되었다고 보아 진다. 4자의 연륜을 보아 태사공 경순왕의 사위는 될 수 없고 따라서 함보가 태사공의 아들일 수는 있어도 경순왕의 외손일 수는 없다. 김세렴은 사학자가 아니며 출처도 없으며 현존문헌에 외손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페샬 작자가 어떤 근가로 외손이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8. 결론

금나라 시조 함보가 신라(고려)에서 북만주로 이주한 부분은 확실하고 신라김씨임도 수긍이 가나 태사공 후예설은 고려사 예종 3년조의 혹자의 말과 김세렴의 감상문 뿐인데 관련사료와 괴리(乖離)가 커 앞으로 신빙성(信憑性)있는 사료가 발굴되기를 기다릴 뿐이다.